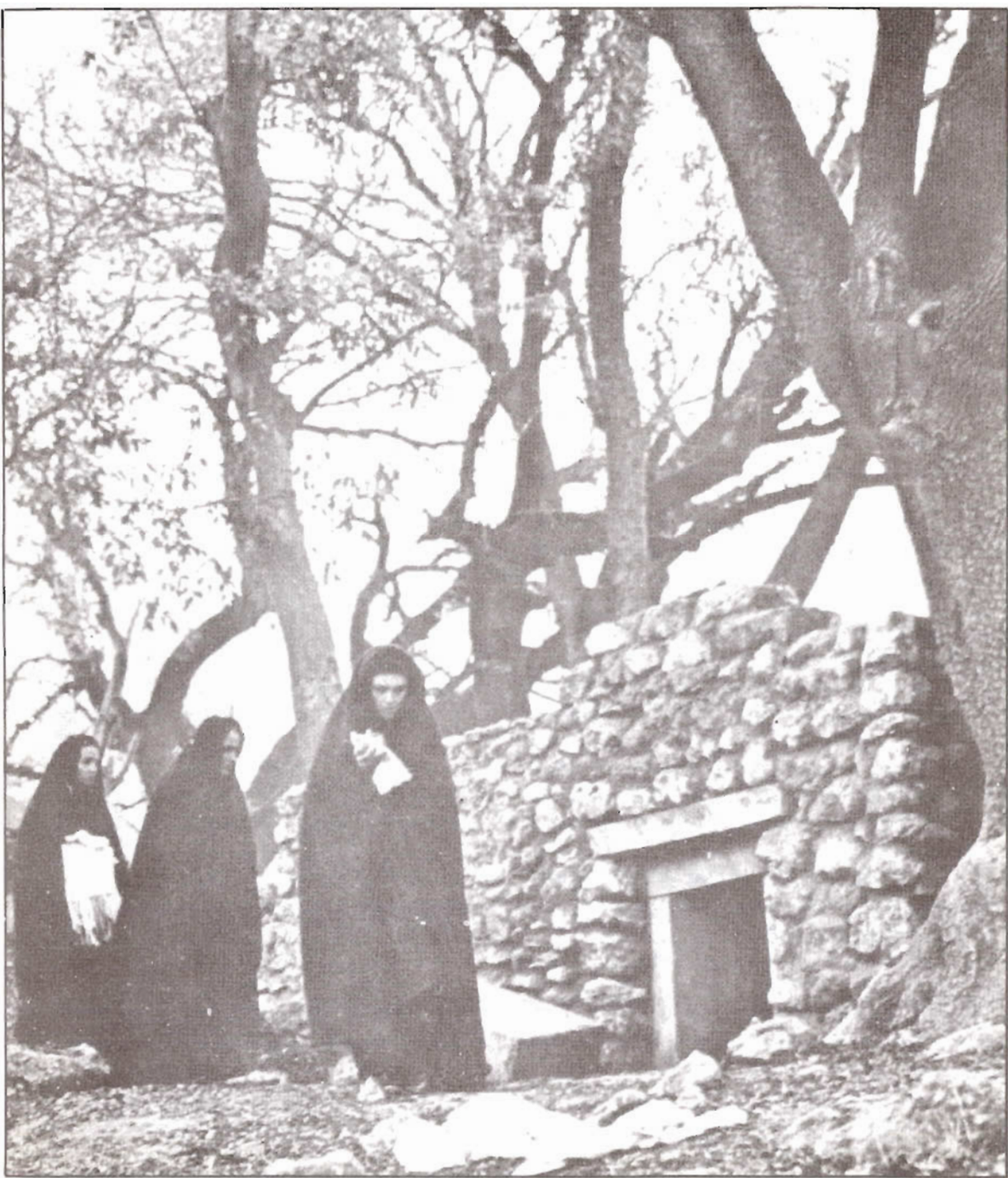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4** 월호



부활신앙이 의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중추적이며 치명적인 사건이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임을 성경적으로 답변한 대목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예수를 믿는 일과, 전하는 일이 모두가 헛것이 되고, 2천년동안 신앙의 선조들이 믿어 내려온 기독교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초자연적 섭리는 인간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논리만 전개 될 뿐이기 때문이다.

「로이드·존즈」의 로마서 강해 제17장에 의하면 「우리의 칭의(稱義)를 위한 부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롬 4:23-25의 강해에서 「믿음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제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성경을 예시하며 설명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못 박았다.

바울사도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특수한 신앙을 강조하면서 부활의 깊은 뜻을 되새겼다.

최근에 와서 「부활신앙」에 대하여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신학자가 속출하고, 부활자체에 의심을 제기하는 일부 교인도 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일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는 예수 죽음과 부활을 신앙적 차원이 아닌 인간의 논리적 차원에서 「조작설」 「기설설」 「영적부활설」 혹은 「토적설」 등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증명이 나타났고, 현장에 있던 많은 무리(이 가운데는 예수를 비방한 자도 수없이 많음)들이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을 응시했었다.

로마군병들은 죽은 예수를 훔쳐갈까봐 돌무덤을 하게 했고, 파수병을 세우기까지 한 것이다.

어떤 입장에서라도 예수 죽음과, 부활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소설의 한 페이지인 「클라이맥스」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기초적 기본 교리는 부활 교훈에서 찾아야 하며, 이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야 한다.

성경·찬송만 옆구리에 끼고 주일마다 교회당만 찾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고 했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7)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사건에 경시하는 풍조를 불식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변혁된 부활신앙에 더욱 돈독해지자.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충천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0권 제 4호 · 통권98호

1982년 4월호 차례

권 두 언 / 부활 신앙이 의미하는 것.....	손경수 · 2
이달의말씀 / 자랑삼 된 교회.....	김장인 · 4

□ 특 집 □

• 우리의 자랑-십자가.....	편집실 · 6
• 부활-새 의미를 갖는가.....	오치용 · 12
•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	김연이 · 4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③]

• 그리스도인의 사회관.....	손봉호 · 16
-------------------	----------

[김창익목사의 주기도문 감해 ④]

•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김장인 · 26
------------------------	----------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⑮]

• 칼빈주의 종말관.....	김하진 · 28
-----------------	----------

사 월 의 시 / 영원한 외로움에서.....	이장화 · 27
연 재 칼 럼 / 말씀의 흥내.....	이건숙 · 22
편집실칼럼 / 이제는 양육에 눈을 뜰 때.....	오태용 · 24
물 댓 들 / 늘 승리생활을 위한 자기 점검표.....	편집실 · 24
책 소 개 /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기르자.....	이형수 · 25
찬송 가 감 상 / 예수 부활했으니(새 174장).....	김하진 · 25
좋아하는성구 / 시편 23편.....	조선근 · 20

교 사 의 난 /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 채우시는 축복.....	임정희 · 21
--------------------------------------	----------

선교사 · 선교지소식.....	32	교 계 소 식.....	34
이 달 의 교 우 동 정.....	31	교 회 소 식.....	35
4 월 의 행 사.....	38	편집하고나서.....	38

표 지 설 명 / 금년도 부활절을 맞으며 우리는 다시한번 부활하심으로 우리
에게 새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활의 아침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간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
하는 마음을 갖도록 두손모아 기도드린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이달의 말씀 □

자랑감 된 교회

〈빌 4:1~9〉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겸손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 4:1-3)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자랑할만한 교회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어느 때 성도들이 모여도 은혜를 받아야 하고, 아니 믿는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오고 오는 후세대에는 복을 물려주면서 자랑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랑할만 하며 자랑할만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빌 4:1)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고 진동하며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한 세상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말은 앞으로 무너질 날이 있다는 뜻이니 안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어디에다 집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의 집을 세우되 영원히 변치 않는 만세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변함이 없고 그의 보호와 사랑, 쌓아 놓으신 축복도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의 교회는 그 예수님의 반석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다’는 말은 ‘일한다’는 말입니다. 튼튼히 서서 싸울 것과는 싸워가면서 일한다는 말입니다. 좌우를 살피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일꾼 양성, 북한선교,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 새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놓고 일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믿음이 적으면 일을 적게 하고 믿음이 충도에서 떠나면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감이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 튼튼히 서는 자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사람이 믿음은 훌륭한데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이들이 지옥갈 사람이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에는 1885년 인천에 장로교와 감리교 두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를 지나는 동안에 성결교, 침례교가 들어오고 교파는 자꾸 늘어나 오늘날에는 서로의 대립으로 다른 교파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나 점점 싸우기까지 합니다. 비록 교파가 달라졌다고 해도 다른 교파에 대해 경솔한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부인하는 무서운 실수입니다.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훌륭해도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여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집안은 부모들이 여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서로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욕을 들리고 맙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덕을 무너뜨리고 남을 업수이 여겨 화목을 깨뜨립니다.

둘째는 핑계입니다. 잘못된 일에서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여 자기 회개는 하지 않고 남에게 돌려 핑계하는 것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입니다.

세째는 욕심입니다.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람도 욕심이 생겨나면 양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총명을 잃게 되어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게 되니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네째는 의무를 감당치 않고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은 사과 나무와 포도 넝쿨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찌르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분쟁거리요, 선한 일의 방해군입니다.

다섯째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되는 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째. 서로 돕는 교회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자 비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외에 나와 동역자들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 4:3)

첫째는 하나님의 종을 도와야 합니다. 많은 교역자님들을 도와야 하겠지만 특별히 병든 교역자, 연약한 여교역자들을 중심으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한가지를 안해 입는 구두쇠가 되더라도 울고 쓰러진 자를 붙들어주는 교회와 개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랑감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서 형제끼리 화목하며 남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효자됨을 칭찬해 주시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도 하나님 인정해 주실 때 마음에 오는 평안은 큰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몸의 평안도 따라옵니다.

둘째, 하늘 창고의 보급이 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지혜로, 물질로, 기술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째, 승리와 성공을 주십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하늘 창고에서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까?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됩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공자가 되고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자랑감인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구 유에서 끌고다까지 그리스도의 수난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가 오를 우리에게 자랑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흉악범을 처벌하는 저주의 형틀이었다. 많은 범죄자와 로마의 반역자들이 십자가에 죽어갔지만 오늘 그 어떤 사람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인류 역사를 소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애정과 신앙고백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만일 단순히 법과 질서를 범하고 죽어간 한 인간이라면 그렇게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가 만일 당시에 유대를 사랑한 한 애국자로서 로마에 항거하다 죽어간 것이라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민족들에게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만일 휴머니스트로서 사랑과 이념을 밝히다 죽어간 한 사상가라면 사상과 지식을 모르는 가난하고 무지한 서민들에게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기억되고 존경되며 충성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만일 단순히 인간을 사회적인 구조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어간 사회운동가라면 가난과 무지를 모르는 인류의 제왕과 통치자들, 수많은 귀족들에게까지도 열렬한 경배를 받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비단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변할 수 없는 참된 신앙고백일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원문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외의 자랑은 어떤 자랑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강력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며 인간 생존의 보람이다. 가만히 인간의 대화와 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식과 예지와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분주히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기에 급하지 아니한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랑할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힘과 명예를,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을, 어떤 사람은 인생체험과 경험을 자랑한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찬란한 자기의 이력서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를 자랑하며 종교적 충성을 자랑하기도 한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을 것도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군대에서 남자들의 대화는 내가 이렇게 여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등, 참으로 저들의 영광은 저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한대로 수치스러운 것도 자랑하고 있다. 피조물도 저마다 자기의 자랑을 분주

히 전한다. 아,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패한 이 많은 자랑들을 보고 있는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게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일찌기 역사에 없었던 자랑이다. 이 독특한 자랑 앞에서 고요히 그 고백의 의미를 묵상해 보자.

바울은 자기의 체험이나 명예를 자랑하지 않았다. 자기의 업적이나 잘난 논리를 자랑하지도 않았다. 과연 자랑할 것이 없어서였을까?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면 지금까지 역사를 살았던 인류 가운데 참으로 자랑할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구비한 사람은 바울 사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은 종교적인 백성이다.

나는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족속 베냐민 지파이며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 세계 언어 가운데 뛰어난 시어를 자랑하는 히브리어를 나는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히브리의 가장 탁월한 교육과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 교육을 받았다. 나는 율법의 영광과 전통을 소중히 여겨온 바리새인이며 종교적 정통성

우리의 자랑-십자가

에 모든 것을 물과한 사람이다. 열심히 말하자면 나는 교회를 꺾박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리를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종교적 충성심과 불타는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멸절하기 위한 다메섹 도상의 길을 모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표준 앞에 내 생활을 비춰보아도 나는 아무 흠이 섞일 여지가 없는 도덕적인 경건한 생활을 살았다

이런 바울이 어느날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정오의 빛나는 큰 빛 아래서 그는 쓰러졌고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 앞에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꺾박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제 고백이 달라지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지금까지 자랑하던 이 모든 자랑의 조건들도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체험하게 된 삶의 영광스런 목표, 그리스도가 내게 의미하는 이 모든 삶의 가치에 비교하면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인간적, 경제적,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 육신적인

자랑을 이렇게 평가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에도 그는 종교생활에 있어서 자랑할만한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늘날 자기의 종교체험과 지나온 종교적인 발자취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자랑스럽게 말할 사람이 누구 있는가?

고린도교회는 자기의 종교적 경험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들은 방언을 말하며 입신을 하였으며 수많은 체험과 종교적 과거 이력서를 가졌고 예수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았다고 큰소리치는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며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노라. 저희가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고 자부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넘치도록 수고하였고 수없이 옥에 갇히었으며 수없이 매도 맞았다. 여러번 죽을 뻔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번이나 맞았고 세번을 태장으로, 한번을 돌로 맞았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번 배에서 파선하여 일주야를 생사를 알지 못하는 깊은 속에서 지냈다. 여러번의 여행에 강

의 위험을 보냈고 강도의 위험을 만났으며 선교하다가 내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해도 받았다. 이방인의 위험도, 시내의 위험도,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형제에게서의 위험도 만났다. 나는 수고했으며 나는 애썼으며 나는 여러번 자기 못했으며 나는 주렸으며 목말랐으며 나는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다. 그 뿐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맘과 내 심장은 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며 인간 생존의 보람이다. 가만히 인간의 대화와 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식과 예지와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분주히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기에 급하지 아니한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랑할만한 요소가 전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힘, 권력, 인생체험과 경험, 지혜와 재능, 종교적 충성을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치스러운 것까지 자랑하기도 한다.

지 아니하노라”

이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험을 떠벌이며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가 가졌던 놀라운 신앙체험을 이렇게 고백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 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 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년 전에 그는 세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감히 그는 자기라는 말을 못하고 그것은 주님이 주신 체험에 불과

하지 자신이 창조해 낸 체험이 아니므로 그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체험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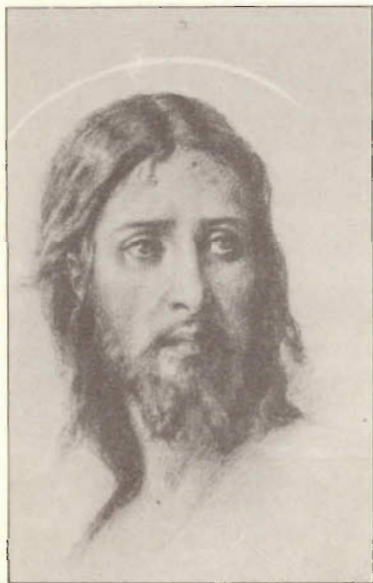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삼승천에 끌려 올라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를 들었고 우리 하나님과 천사들과 수많은 영적인 세계의 곳에서 긴밀한 영적 체험들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 사도야말로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는가, 혹 누구 바울이 이 세상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 바울이 이 세상의 돈을 알았다면, 바울이 이 세상의 황금의 권력을 알았다면 그 위대한 돈과 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에 쟁쟁한 로마의 권력자들을 만났고 나폴리의 수많은 부요함을 그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테네를 방문하여 높은 지성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더불어 토론하며 그들이 자랑하는 지의 본질을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친히 폼페이를 방문한 사람이었고 폼페이의 수많은

패락과 허영과 환락의 정체를 체험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 세상의 허구물, 찬란한 그 영광위의 허무물, 쓰디 쓴 독초같은 죄악을 정체를 알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그가 탄생하던 그날, 하늘의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하였고 동방박사들은 일개 한 아기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는데—을 자랑할만 하지 않았을까?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2000년 전 그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그 군중들에게 환영과 인기와 갈채를 받던 그 장면을 자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영광의 부활, 아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이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장면을 자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필이면 십자가, 고난과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를 바울은 왜 자랑하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



“나는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지금까지 자랑하던 이 모든 자랑의 조건들도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체험하게 된 삶의 영광스런 목표, 그리스도가 내게 의미하는 이 모든 삶의 가치에 비교하면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인간적, 경제적,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 육신적인 자랑을 이렇게 평가했다.

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십자가에서 바울 사도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엄격하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추적하여 그 죄를 자기의 아들에게 걸머지워 심판하시기까지 인간의 죄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놀랍게 조화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사랑과 의는 나를 구원하려는 영광스런 지혜로서 태초 이전에 십자가의 설계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었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도리는 비로소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다. 아니, 십자가가 있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지 않았는가,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십자가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입증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과는 달리 그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철학이 나를 용서할 수 있었는가, 어떤 철학이 나를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하여 죄를 용서함 받은 참된 기쁨을 나에게 제공할 수 있었는가, 어떤 정치가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었는가, 어떤 지식이 나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도리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었는가, 어떤 도덕이 강도를 변화시켜 성자로 만들었으며 매춘부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성녀로 만들 수 있었는가, 어떤 능력이 짙패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가.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인 것이다.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애 목표는 십자가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의식하며 평생을 살았던 주님이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에도 헤롯의 살육의 칼은 벌써 아기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었고 30년 고요한 생애를



보내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여인이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는 그날 잔치석상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죽음의 모습과 날과 죽음의 시간을 알고 죽음을 의식하며 죽음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일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생애를 사셨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였지만 그 칭찬의 건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천사가 노래하고 동방의 박사가 경배하던 그의 탄생, 혹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던 그 화려한 인기와 갈채를 자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죽음을 깨뜨린 승리, 영광의 부활, 아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이 거가 막힌 영광스러운 장면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십자가, 고난과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었기 때문이다.

너편엔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그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것과 거기서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단순한 인간적인 감상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극구 말렸으나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듯 그 유혹을 물리치셨고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천년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환영하던 수많은 군중들은 잠시후 며칠이면 년하여 폭도가 되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지를 사실을 그는 알고 계셨고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마태는 '주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했고 마가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라고 하였으며 누가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라고 묘사했다. 이것은 고민이 넘쳐 터질 듯하며 공포가 극치에 달한 주님의 경악을 표현한 단어들이다. 왜일까? 주님이 그 죽음과 고난이 두려워서였을까? -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단순한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악의 잔이었던 것이다. 그 잔 속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감당해야 할 인류의 죄악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가 죄를 짊어진다는 말은 그가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를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묘사하고 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를 접촉하여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는 주님의 경악과 고민은 그 죄를 접하는 두려움이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

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접촉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만일 그분이 십자가를 거부하시면 그 잔을 거부하시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떨어질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눈 앞에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멸망해야 할 사람들, 우리들, 바로 나-을 바라보시며 견딜 수 없는 심경 가운데 말씀하셨다. - "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날이 밝아 사랑하는 제자 중의 한 사람이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주님의 손등에 입맞춤할 때에 그는 이미 반역의 제자이며 그가 할 일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 그의 복종은 단 한번이 아니었다. 다섯번이나 개처럼 법정을 끌려다녔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에게 심문을 받으셨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 유대인 최고 종교재판소에서 무지한 살인자처럼 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와 헤롯과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겨워지면서 심판을 받으셨다. 이적을 보이려고 냉대하며 수많은 회유와 조롱의 언어를 퍼붓던 그 모습들 앞에 잠잠하며 침묵으로 그를 대했던 주님의 얼굴, 대야에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범죄에서 무지하다는 어리석은 판결 속에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죄수로 검문을 받으셨다. 옷이 벗겨지고 흉포가 입혀지고 가시면류관이 씌워졌다. 사정없이

어떤 철학이 나를 용서할 수 있었으며 나를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하여 죄를 용서할 받은 참된 기쁨을 제공할 수 있었는가, 어떤 정치가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었는가, 어떤 지식이 나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얻을 수 있는 이 놀랍고 신비한 도리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었는가, 어떤 도덕이 강도와 매춘부를 변화시켜 성자로 만들 수 있었는가, 어떤 능력이 광패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능력이었다.

가해지는 채찍—역사는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을 찧던 그 채찍은 한번의 채찍에 모든 등뼈의 살이 묻어나는 채찍이었다고 말한다—과 침뱀을, 사육과 침뱀을 당하며 거꾸러지면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몸에 수십관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 언덕을 오르셨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길을 슬픔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다. 호산나 소리치며 환영하던 군중들, 오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그에게 감사하던 군중들의 무리,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조차 고독하고 힘든 예수님의 길열에는 보이지 않았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며 끌고다의 언덕을 향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구세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는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슬피 통곡하는 에루살렘의 여인들을 위로하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던 그 주님, 그가 드디어 십자가에 뉘이심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박힘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참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수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무엇인가?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닌 여섯 시간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엘리 엘리를 부르시며 내 모든 죄를 담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뿌리시던 주님, 하늘은 빛을 잃었다. 하늘과 땅 사이의 흑암 속에 매달려 자기를 못박고 조롱하며 침뱀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 최후의 핏방울이 끌고다의 언덕위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말씀하셨다. — “다 이루었다”

한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이 장면을 목상하다 견딜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이렇게 노래했다.

「그날 그 하늘을 나르던 새들은 시커먼 하늘을 향해서 이르기를 ‘다 이루었다’

그 구름은 더 높은 구름을 향하여 이르기를 ‘다 이루었다’

다시 그 구름은 더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의 구름을 향하여 ‘다 이루었다.’

다시 그 구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위하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과 천사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다 이루었다.’

천사는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니 당신이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는 방금 끌고다의 언덕에서 마지막 피를 뿌리시고 ‘다 이루셨음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절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얻었고 이 치욕의 십자가는 우리



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 이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원을 가져다 주었고 말할 수 없는 이 고역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 형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낙원을, 이 죽음의 십자가는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이 미움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나는 십자가 이외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 자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하신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과연 무엇인가!!!

「그날, 그 하늘을 나르던 새는 하늘을 향해서 이르기를 ‘다 이루었다’
그 구름은 더 높은 구름을 향하여 이르기를 ‘다 이루었다’
다시 그 구름은 더 높은 영광의 구름을 향하여 이르기를 ‘다 이루었다’
다시 그 구름은 영광의 그룹과 천사를 향하여 이르기를 ‘다 이루었다’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니, 당신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는 방금 끌고다에서 마지막 피를 뿌리시고 「다 이루셨음니다」

부활 권능을 힘입는 삶

오 치 용 목사
(선교부지도)



1. 삶과 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많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아쉽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해도 그것조차 그 종류를 헤아리기 시작하면 다양하게 나타나갈 것이다.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삶을 살고 있다. “삶”이라고 하는 우리 말은 참 묘하고 좋은 말이다. 그 속에는 “생명, 생활, 살아남” 등의 뜻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에는 삶을 살되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삶”과 “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을 해

결하고자 애쓰고 있다. “삶의 문제”와 그에 필요한 “힘의 문제”를 해결코자 인생은 국가를 갖고, 종교를 갖고, 철학을 갖고 과학을 가지며 다양각색의 제도와 수단 방법과 각종 해결책을 추구한다. 인생은 그 모든 복잡한 수고를 하면서 번듯한 많은 것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것들은 과연 인생의 삶과 힘의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성경은 말한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다”고 (시편 2:1).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는 그 모든 경영은 허사요 삶의 문제와 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일축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2.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삶과 힘의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과연 기독교인들은 삶과 힘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 어찌 해서? 기독교인들은 삶과 힘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삶과 힘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삶과 힘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해결될 수 없는 삶과 힘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하게 삶과 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요, 기독교인들은 유일하게 삶과 힘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는 삶과 힘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으니 그것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만이 갖고 있는 참된 삶과 힘이 무엇인지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갖고 있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겠지만 갖고 있으면서 잃어

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가질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6:4-8).

오늘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특별히 갖고 있고 또 지켜야 하는가? (계시록 3:1,2). 그것은 “부활의 삶과 그 힘”인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생명과 능력이므로 그 진리와 그 내용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이미 기독교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최절한 무덤, 죽은 뼈가 가득한 곳이 되고 만다. (마태 24:25-28). 현대의 기독교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속에 부활의 삶과 힘의 진리가, 그 교훈이, 그 확신이 희미해지므로써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불신자 내지 타종교인들의 모습 사이에 두드러진, 친척의 차이와 같은 대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안고 있는 큰 문제이다.

초대교회 때에는 어떠하였는가? 초대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성도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의 중심이었고(행 1:21,22; 2:24,32), 초대교회 의 부흥과 성도들의 큰 은혜생활의 원인이 된 중심 복음은 “부활”이었다.(행 4:33).

바로 이 사명, 이 부흥,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및 기독교인들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인 것이다.

3. 기독교에 독특한 부활의 삶과 힘

우리가 오늘날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만 주어지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삶과 힘의 진리를 깊이 올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그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거기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담당해야겠다.

기독교에 독특한 부활의 삶과 힘은 무엇인가?

1) 부활의 삶 (The Life of Resurrection)

우리 기독교에 한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죄악을 대속하시고자 죽으셨다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 또 한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 일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것이다 (행 1:3~11).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또 한가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즉, 주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즉 예수 믿는 자, 요 6:28,29)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시 2:1~12)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29)는 사실이다. 예수를 배척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 속의 형벌을 받는 부활을 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며 부활을 할 터인데 이 생명의 부활의 삶을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예수께서 인류 역사상 첫번째로 부활하셨던 것이다 (고전 15:20).

그리고 각각 차례대로 부활할 터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신자들의 첫째 부활, 제시록 20:5,6)”와 부활하여 이 생명의 부활의 삶을 누릴 것이다. 부활은 영혼과 죽은 육체(잠자는 몸)의 새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은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

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느니라”(고전 15:42~45). 바로 이같은 삶이 우리 신자들의 소망인 부활의 삶이다.

2) 부활의 힘 (The power of Resurrection)

부활의 죽은 육체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신령한 몸으로 일어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을 가능케하는 힘은 어디 있는가? 과연 부활의 힘은 무엇인가?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The power of his resurrection)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한다고 하였다. 과연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그 힘은 무엇인가?

첫째, **성령의 능력** 즉 그리스도를 부활케하신 성령의 능력이다.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둘째, **부활하신 주의 능력** 즉 신자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부활 주의 능력이다. (Calvin)

세째, **구원의 능력** 즉 신자를 부활시키시기까지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이니 즉

① **징의의 능력** (The power of Justification) 즉 사형선고 받은 자를 무죄선고 내리시는 능력(롬 4:25; 8:2등)

② **성화의 능력** (The power of sanctification) 즉 썩어 부패되어 죽음의 삶을 사는 자를 살아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는 능력(요 13:8등)

③ **영화의 능력** (The power of glorification) 즉 천하고 낮은 자를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시키시는 능력 (빌 3:21; 고전 15:43)이다.

이상은 한가지 힘, 능력을 몇가지 단계로 고찰한 것이니 부활의 권능을 몇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요 한 가지이며 이 유일한 권능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니 세상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힘이다.



4)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삶

신자들의 부활은 단순한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 부활의 사건은 수시 수시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아니다. 신자들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일은 주님 재림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사망권세에서 일으킨 성령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의 권능과 신자들을 부활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는 권능은 지금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는 힘이다. 그 힘은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힘이다. 진정 주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것을 크게 힘입고자 간구하면 부활의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힘을 우리 생활에 작용시키실 것이요 우리는 장차 있을 부활의 삶을 현실에서 “증거의 표적”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심령이, 생활이, 사업이, 가정이, 환경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확실히 증거하시고자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 안팎에서 나타내 주실 수 있다. 누구에게? 부활의 삶과 그 권능을 뜨겁게 믿고 제일의 증거체목으로 삼으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코자 생명결고 증인되는 자들에게이다! 부활의 삶을 맛보며 그 힘을 입고 사는 자가 왕성히 늘어갈 때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종현은 세상에 등대가 될 것이다. (*)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주님을 떠나 고아처럼 살기 10여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지도 10년이 되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 10년이면 출생의 의미도, 성장의 의미도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가정을 확인하고 사회를 익혀 나가면서 성장하여 부족함대로 자립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의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면서 그의 주된 관심을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성취된 구속역사에 두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므로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고 그늘과 악암의 시대는

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에 그치지 않게 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할 필연적인 의미를 부가하는 것이다.

나는 바울과 같이 D. Day(Deter-mine Day, 사탄에 대한 공격 개시일, 십자가와 부활)와 V. Day(Victory Day, 전승기념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부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육체와 함께 정



부활생명으로 성령을 좇는 삶

김 연 이 전도사

(제6 지구 심방담당)

증생한 지 10여년,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이이만 같아서 성장한 모습이라곤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다.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는 세례의 의미(죽음과 부활)를 충분히 알지도 못한 상태였고 그후에 교육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공부하게 되면서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았음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감사, 찬양도 하여 보았으나 여태까지의 삶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 교리적이고 신앙고백적 의미에 그치고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악한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속에 심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지적인 신앙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다.

지난 3월부터 개강된 성경 연구원 권찰반 강의를 맡게 되면서 바울

지나갔고 승리는 왔고 약속은 성취되었다. 죄악과 속박의 시대는 지나갔고 은혜의 자유의 시대가 온 것을 선포한다.

바울이 여기서 그쳤다면 나는 단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시대에서 진짐을 받은 것을(갈 1:4)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면서(롬 6:1) 살아가도 좋을 뿐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역사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한 구속의 시대와 재림의 시대 중간에 사는 성도가 어떻게 죄와 결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 피력한다.

여기서 나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단지 내가 그리스

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실만 있어야겠다. (갈 5:24) 완전한 죽음이 없이 완전한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집적인 이기심과 죄의 옛 삶을 등쳐야 하겠다. 옛 본성의 거부는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가차없고 단호한 것이어야 한다.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 다시 집행 현장에 미련을 갖고 찾아가지 말아야겠다. 옛 본성을 고무하고 음미하고 집착하다가 급기야 십자가로 달려가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고집어 내려서 다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나는 이미 육체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고 십자가에 못박은 이상 그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다시 못을 뽑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겠다.

두번째로는 성령을 좇아 행해야겠다(갈 5:25)

성령으로 부활하여 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수동적).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한다(적극적, 능동적)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성령의 생명을 위해 육체를 버렸고 선한 일에 온전히 헌신키 위해 악한 일을 버렸으며,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모든 영예로운 것(빌 4:8)을 위해 더럽고 수치스럽고 악한 것을 버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는 단순한 교리적, 신앙 고백적 부활의 의미의 삶을 초월하여 부활의 능력을 갖고 적극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소멸될 자신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어 영광의 몸으로 되실 자신으로 아셨기에 적극적으로 죽음에 굴복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죄로 오염된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부정적이고도 소극적인 자아형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도 새로 부활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 자아형상을 갖고, 비천하고 죄악에 짓눌린 자에게도 인격관계를 수립하며, 사랑의 의무를 지식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자로, 황금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듯이 신앙의 빛이 발하도록 누추한 삶을 벗어 버리고 선한 생활의 모범을 보이면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닦치는 모든 환란을 극복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밖에 없는 초라한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로 군림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를 본받아 적극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야겠다.

달걀속에서 병아리가 형성되어 가듯이, 다윗의 작은 점(點) 점이 사울왕국을 점령해 가듯 내 심령속에 배태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점점 성장하여 나의 종교적, 형식적인 것에 굴종하는 나약을 벗어 버리고, 나의 모든 자아가 내 속에 거하시는 부활의 주님께 의해 잃어져 감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될것을 소망해 마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예수님께서 죽어서 소멸될 자신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어 영광의 몸으로 되실 자신으로 아셨기에 적극적으로 죽음에 굴복하신 수 있었던 것처럼 죄로 오염된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부정적이고도 소극적인 자아형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새로 부활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 자아형상을 갖고 비천하고 죄악에 짓눌린 자에게도 인격관계를 수립하여 사랑의 의무를 지식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자로, 황금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듯이 신앙의 빛이 발하도록 누추한 삶을 벗어버리고 선한 생활의 모범을 보이면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닦치는 모든 환란을 극복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밖에 없는 초라한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라

사회를 향해 늘 개혁의지로



손 봉 호 박사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 합동신학원 강사)

1. 「사회」란 말의 의미

성경에는 「사회」란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사회」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100여년 정도됩니다.

희랍어에도 「사회」란 말은 없습니다. 희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희랍어에는 「정치적인 동물(Zoon politik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틴어에 「사회」라는 societas란 단어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사회」란 말이 오늘날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 것은 서양에서 17세기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사회라 하면 국가라는 뜻과 비슷하게 사

용했습니다. 17세기부터 사회를 국가와 좀 다른 인간의 집단, 즉 국가의 법적인 조직 이외에 가치관이 공통되고 어떤 특수한 세계관, 인간관, 어떤 조직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집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던 개념이 오늘날에는 모든 학문에 이 「사회」라는 개념이 다 동원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사회」란 말의 성경적 의미

성경에는 「사회」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사회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크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이 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자유·보수주의자들의 사회관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사회」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단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세상」이나 「세대」라는 말이 바로 사회를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했을 때 이 세대를 희랍어로 「아이온」이라 하는데 우리 말로 「세대」 「세상」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말의 뜻은 한 세대, 두 세대(generation)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모여 구조와 조직을 가지고 공통되는 가치관을 생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소위 오늘날에 「사회」라는 개념입니다.

또한 「세상」이라는 말은 희랍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는 성경에서 원래 그 의미대로 무질서한 세상 대신 질서가 있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뜻으로도 쓰였지만 더 넓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세속」이라는 말도 희랍어에서는 「코스모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코스모스」 「아이온」이라는 희랍어를 우리말에서는 「세상」 「세대」 「세속」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사회」라는 말은 없지만 원어에는 「사회」를 뜻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인과 사회와의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 '세속'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받으면 안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말들을 정의만 하고 넘어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이 사회는 기독교인인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사랑하시는 사회

성경이나 오늘날 우리가 '세계'라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권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배하시고 사랑하느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와 사회를 분리시켜서 교회는 기독교인의 관심거리고 사회는 안 믿는 사람의 관심거리라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교회는 사회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사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사회를 이처럼 사랑한다면 분명히 사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로 되어 있는데 여

기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회안에 계셨고 또 이 모든 사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하여, 즉 예수님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이 사회가 그 합법적인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할 터인데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도 역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며 통치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기독교인의 관심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이고 어떤 면에서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그중 중요한 한 가지는 사회에 대해 무관심한다고 사회에 의해 영향을 안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사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지금 사회에 대하여 전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고 그 때문에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집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일 많이 배우게 됩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 취사선택을 하

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사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데 무관심하면 영향을 받기 쉽고 무관심이 크면 클수록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에게 분망히 드러납니다.

2) 악으로 가득 찬 사회

성경은 이 세상, 혹은 이 세대로고 말했을 때 그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 '세대' '세속'했을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중립적으로 말할 뿐, 특히 신약성경에서는 '세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모두 악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3장을 보면 구약의 시편 14절을 인용하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한 자로 봅니다. 그러니 이 부패한 존재들로 구성된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회라 하는 것은 물건이나, 건물이 아니라 공

오늘날 한국사회가 기독교를 자꾸 끌어내리는 무서운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돈과 쾌락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느냐 교회와 교인들이 어느 정도 향락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느냐에 따라 그 교회와 교인의 영적 수준이 달려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상은 우리 교회가 사회의 물질주의를 너무 그대로 배워가고 있는데 있습니다.

통된 가치관, 인간관, 신관 등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마음의 반영이 한 사람의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반영된 것을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마음이 악하니까 그 사회가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인간 집단의 사회가 악하다고 단순히 말할 정도 이상으로 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때는 개개인의 악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사회는 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개인은 도덕적으로 혹시 가끔 선할 수가 있지만 인간의 사회가 선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바른 관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각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얼굴 때문에 마음은 비록 악하지만 많은 제재를 받는데 사회는 얼굴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이기욕만을 뽑아서 합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 나라와 나라, 사회, 단체가 주도해서 어떤 일은 결정하고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좋은 대의명분 뒤에서 자기쪽의 이익을 미리 계산해 놓고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지나온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악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악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단체 악에 가담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땅을 살 때 소위 기증 형식으로 땅을 삽니다. 교회에 기증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매매를 하면 세금이 공제되기에 피차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단체나 정부에서 책임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 할 것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면서 그런 악의 이득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회악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사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것도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본 받지 말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너희가 지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아라. 그러므로 될 수 있는대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은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새롭게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사회 속에 자꾸 깊이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이 다른게 아니고 사회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 도수를 보려면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사회와 비슷하냐를 보면 됩니다. 교회가 사회로 내려가는 것에서 중단하고 다시 영적인 면에서 올라와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자꾸 끌어 내리는 무서운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돈과 쾌락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교회와 교인들이 어느 정도 향락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느냐에 따라 그 교회와 교인의 영적수준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상은 우리 교회가 사회의 물질주의를 너무 그대로 배워가고 있는 데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위험에 대하여 말만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주의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모든 다른 가치를 다 삼키고 모든 가치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사회악에 동참하고 사회악에 의하여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자꾸 사회와 같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 대해 무관심한다고 사회에 의해 영향을 안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사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지금 사회에 대하여 전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고 그 때문에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3) 개혁해야 할 사회-우리의 책임

그러면 이런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길은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중세 천주교처럼 산꼭대기에 성을 쌓고 그 속에 들어가 사회로부터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혀 불가능한 방법이지요. T.V나 라디오의 전파가 어느 곳이든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이 세상을 떠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장 한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시장 한 가운데서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지 않고 시장 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고향이라고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회생활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속에서 사는 우리는 사회에 대하여 두가지 작전을 세워 나가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이 사회의 악에서 벗어나고 이 사회에 동참하지 아니하려는 소극적인 방법과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회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우리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고치려면 역시 이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회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이어야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가지 작전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조금 벗어나되 또 다시 사회에 들어가서 끌어 올리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회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사회와 같이 되어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이 사회가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망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했던 선지자들 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시 소금이 녹아지는 것처럼 희생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기독교인이 희생하지 않고 의롭게 살려는 것은 망상입니다.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옳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현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려고 하다보니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유주의자의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나중에는 세상의 생각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전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사회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과 다른 것이 필요하지 세상과 똑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사회에 살면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기독교인은 이 세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이 사회가 짜지 않은데 우리는 짜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을 짚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으면 짚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사회악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회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를 개조해야 하는데

그 개조 방법에 있어서 두가지 정도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의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일해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게 되면 그 자녀들은 불량아가 될 것이고 사회는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구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보수주의는 구조에 대해서 너무 염증을 느낍니다만 어느 정도의 구조개선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 사회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써야 됩니다. 이 구조가 정말 잘 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고 잘못된 구조를 우리가 뜯어고치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구조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개조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사회는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도 사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사회악을 그대로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축

• 새가정부 특강예고!!! •

일시 / 1982년 5월 6일(목)~8일(토) 오후 7시~9시

장소 / 충현교회

강사 / 양 은 순 (대한산학교강사)

- 첫째 날 - 결혼준비 - 그리스도인의 배우자 선택
- 둘째 날 - 결혼생활 - 부부간의 대화
- 세째 날 - 자녀교육 -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기르자

복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밀수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현금만 많이 내면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은 아무리 많아도 이 사회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도덕적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연한 양심, 그래서 조그마한 가지만 찢려도 아파하는 그런 양심의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가면 갈수록 이 사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사회가 궁극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완전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위에서 이루어 주셔야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부릅니다. 비관주의라는 이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뜻이요, 선지자적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외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회가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망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했던 선자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의로운 사회로 만드시면 한없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시 조금의 녹아지는 것처럼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희생을 작오하지 않고 의롭게 살려는 것은 망상입니다. 우리는 물질

적으로나 명예에 있어서나, 권력에 있어서나, 모든 향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작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의로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이 세상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 내가 좋아하는 성구-시편 23편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 선 근 장로
(월간충현 편집위원)



어린 시절,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는 내가 좋아한 어린이 성가 중 하나였다. 그후 이 곡이 시편 23편을 발췌한 것으로 알게 되면서 이 내용을 자주 대했고, 피난시절 등 다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기도 했다. 이 시편,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곧 나의 신앙고백으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다윗은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나타낸다. 그는 스스로가 목자인 때가 있었다. 그는 선한 목자가 그의 양떼에게 갖는 깊은 관심과 돌보심을 알고 있었다. 선한 목자가 그의 양떼 하나하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인가를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목자는 양을 먹이며 인도한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먹이시며(요 10:9)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히 2:10).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신 2:7). 가령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여호와와 목자이고 자기는 그의 양이라고 한다면 결코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어떤 해로움을 받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23편을 읽거나 명상할 때 삶에 활력소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때 힘이 솟는다. 이 시편은 연세대 교수인 나운영 장로님이 작곡했는데, 지금은 독창곡으로 결혼식 장이나 그밖의 모임에서 널리 불리고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애창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1973년이였다. 영동으로 이사하게 된 나에게, 믿음의 벗인 작가 박종구 장로님이 친필로 표구에 담아 이 시편 1절을 표구에 담아 보내주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접실에 걸려 있는 이 말씀은 어느새 우리 가정의 성구(聖句)로 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앞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중의 하나로 되기를 바라고 있다.

교사의 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 채우시는 축복



임 정 희
(중등부교사)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며 찾은 시간보다, 땅의 것을 구하고 있으며 문을 두드렸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나!

나는 내년과 후년-미래를 향한-에 내가 서 있을 어떤 위치(?)에 대한 진지한 기다림과 철두철미한 준비작업 보다, 오늘과 내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 근심, 초조함으로 주님께 맡길 것을 내가 짊어지고, 5~16개월 전부터 계속 패배의 쓴 잔을 마셨었다.

신학기에 접어들어 내 주위는 너무나 많고 세밀한 변화가 밀려들어왔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나오라」고 성령님께서 생활속에서 자주 권고해 주셨다. 학교의 재물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사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확신을 갖길 오랫동안 권고하셨었다.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내 뜻을 펴 나가려고 무진 애를 썼다. 진정으로 나는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으며 낮은데 처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었다.

3월 20일경 친근한 전도사언니와 기도할 처소로 가게 되었다. 나는 어떤 음성과 계시를 바라지 않았다. 오직 주님앞에서 새 결심을 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엄밀히 말해서, 온전히 다 말하지 못했었다. 열어놓지 않은 창들은 다음날 새벽기도를 통하여 열렸고, 하나님앞에 순종-내 생활에서 자족하기 힘쓰는 것-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새벽시간의 "구별된 바침"은 내 생활의 일대 두번째의 전환기를 가져왔다. 불과 1달도 안 되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님안에서 자신의 문제, 아니 그보다 작은 범주의 것까지 말기는 것을 배웠다.

내가 가장 응답을 못 받은 것으로 여긴 기도제목은 가정 구원 문제였다. 도리어 선한 제목을 앞세워 놓고, 나는 계속 좌절했다. 하루가 지나도 또 하루가 지나도 변화가 없었다-물론 가족의 마음과 생각, 의식들이 변화된 것

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그 후 내게 감당할 믿음이 없음과 감당할 수 있는 겸비한 자세가 없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 마음 속에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안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인위적이고도 내 중심적이며 나를 위한 기도를 회개하며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다. 늦은 시각-10시경-에 돌아오니, 동생이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는 몸이 너무나 무겁고 피곤해서 동생의 어깨를 손으로 두번 쳤다. 내 동생은 반응이 없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나갈꺼야"라고 하며 진지하게 말했다. 동생은 3년동안 교회를 멀리 했으나, 친구들의 인도로 이 교회 저 교회를 갔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필요를 못 느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동료들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이제 3년이 흐른 그 날밤에 동생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됐다. 내가 주는 교훈과 설득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싶었던 것이다. 자신 나름대로 사색하면서, 곤고한 것을 세상의 어떤 친구와 해결할 수 없음을 주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경희는 돌아온 주일 청년부를 나오게 되었다. 그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은 중등부와 청년부 사이에 주님을 멀리했던 그 공간을 앞으로의 동생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썩어진 거름이 되게 하셔서 채우시리라.

부활절을 앞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면서 새벽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기도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앞에 순종하여 온전히 말기고 구했을 때, 만사형통하는 복을 주신다는 귀한 교훈을 주셨다.

말씀의 흥내

이 건 숙
(소설가)

「어디 갔다 왔니?」

「아무 데나.」

「날이 덥구나. 무얼 마실래?」

「아무 거나.」

지쳐 돌아온 딸을 근심스럽게 맞아들이는 어느 어머니와 딸의 대화토막이다. 이런 맥빠진 대화 다음엔 언성을 높인 어머니의 고함일 있을 것이다.

일생을 살아가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도 가장 업신여기는 것이 이 「말」이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돌아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대화 속에 살고 있다. 가족끼리, 친구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음식점에서, 물건을 사며, 하나님과, 전도하며, 우리는 꼭 이 「말」이란 매개체를 이용한다. 전달되는 음향과 내용에 따라 우리는 그 얼마나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대화를 상실한 인간을 상상할 수도 없다. 만약 어른과 아이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이웃과 나 사이, 국민과 정치인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다면 역사의 흐름은 그칠 것이고 동물세계로 전락할 것이다.

말이란 옛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했기에 많은 명언들이 있다.

「세 치의 혀가 다섯 자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더 많아진다.」

「듣기 좋은 말은 아직도 무료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처럼 대화란 참으로 중요하다.

며칠전, 십여명의 문인들이 모여 안양에 있는 소년원엘 갔었다. 두 명씩 말아 엄마가 되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엄마가 되겠다고 바쁜 시간을 쪼개 나선 사람들은 놀랍게도 모두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목소리를 통한 대화가 시간의 제약을 받기에 편지로나라도 그들의 대화단절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T 여사의 소상한 설명이 있었다.

80명이 수용된 이 소년원에서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을 상담, 분석해보니 모두 가정타이란다.

* 교우기업소개 *

창업 49년의 신용



남 문 당

전화 : 599-3776, 593-0192

金正泰 집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본관 2층 5호로 이전

정확히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불통에서 온 결과라고 했다. 외적으로는 계모 때문에, 술을 너무 마시는 아버지 때문에, 또 가난 때문이라며 이유를 달지만 그 깊은 곳을 파헤치면 대화 없는 가정에서 숨이 막혀 뛰어나온 아이들이란다.

나에겐, 미경이와 애리가 배정됐다. 우리끼리 오붓이 앉아 오랜 대화를 나누고 운동장에 나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파란 하늘을 보며 맘껏 웃었더니, 어둠던 그 애들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넘쳤고, 떠나는 우리를 향해 눈물을 보여주었다.

울적, 짙적 나와 나란히 앉은 P.여사는 한창 이름이 알려진 소설가였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노력하는 중이라 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하는 상태였다.

「성경을 보면 다 좋은데, 그 부활에 이르면 영남독이 안돼.」

「그래요.」

「더구나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는 대목에 이르면 동화 같아서 유치한 생각도 들구.」

마이크로 버스가 산기슭에 자리잡은 소년원을 빠져나오느라고 심하게 흔들렸다. 어찌 대답할까? 차창으로 눈을 돌리자 노란 개나리와 빨간 목련이 한창 입을 벌리고 있었다. 봄꽃은 잎이 없었구나! 얼마나 오묘한가!

「P 선생, 봄꽃은 왜 잎이 없지요?」

「평범한 흙에서 나무들이 어찌 그리 고운 색깔을 빨아올리는지 참 놀라워요.」

「저 꽃들과 P 선생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 것입니까? 창조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전 믿어요.」

「어떻게 창조했지요?」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어머! 그럼,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호호……」

P 여사보다 난 이 말씀이란 단어에 깜짝놀랐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얼마나 무감동으로 받아들여온 진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 「말씀의 홍내」도 내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 마다, 말로 사랑과 평화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홍내를 내야 하지 않을까.

창조의 홍내를 내려면 말하기 전, 깊이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

「주님! 다가오는 기쁜 부활의 아침에 무엇을 주님께 바칠까요, 가장 작은 자에게라도 말로 사랑을 기쁨을 창조해내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이 부정한 입술을 통해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 방송설교안내 ＝

전과를 타고 흐르는 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 분	기 독 교 방 송 (837 KHz)	극 동 방 송 (1188 KHz)	아 세 아 방 송 (1566 KHz)
김창인 목사	• 매주(토) 오후 9시 ~ 9시30분 <주일 낮에 배설함> • 매주(목) 0시45분 ~ 오전 1시 <마태복음 강해>	• 매주(일) 오전 5시 45분 ~ 6시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 7시 <주일 낮에 배설함>
신성종 목사		• 매일 오후 8시40분 ~ 9시(주일 제외) <앨마오성 경연구>	
이종운 목사			• 매주(월) 오후 8시 45분 ~ 9시
부 목 사	• 매주(목) 0시30분 ~ 0시45분 <통일의 그날까지>		

이제는 양육에 눈을 뜰 때

오 태 용

한국 교회가 전도에는 열성적이지만 양육에 대해서는 그 개념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일반 전도가 아닌, 개교회에서의 전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양육을 포함시켜 생각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전도를 해서 교회의 교인수만 늘인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거리가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일단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자기 교회로 인도할 경우에 숫자를 늘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영적인 아이를 낳아서 교양원에 맡겨놓고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오 식의 태도는 아주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바야흐로 『논

현동 시대』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저마다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있을 터인데 그 중의 하나가 지금 거교회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공부」가 아닌가 한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요 생산적인 작업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좀 더 쌓는 것 정도로 그친다고 하면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닐 것이다. 그 공부는 60 배, 100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한다. 이의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양육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확신한다.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을 그의 인도자나(훈련된 사람일 경우) 혹은 소속 구역의 유능한 평신도와 일대일의 관계로 맺어주어서 일정 기간 책임지

고 돌보게 하면 이 양육을 통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우선 첫째로 초신자의 신앙이 체계있게 성장된다. 둘째는 그를 양육하는 사람의 신앙과 생활이 수준 높게 향상된다. 일대일로 지도하는 자가 거짓으로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 초신자에게 있을 수 있는 소외감이 제거되고 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넷째로 교회 전체가 이런 분위기로 움직여가면 새로운 활력이 작용하고 유기적인 생명력이 넘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크게 드높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 우리 교회의 잠재력은 팽창하리라고 확신한다.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양육의 비전에 눈을 뜨는 것이다. 90% 헌신된 100 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100% 헌신된 10 명을 택할 것인가?

== 물맷 돌 ==

늘 승리생활을 위한 자기 점검표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켜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음의 7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자—

1. 그 일이 좋게 보이는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
2.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3. 예수님 같으면 이 일을 하시겠는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4.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부딪힐 것이나 거절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롬 14:13)”

5. 이 일을 과연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좇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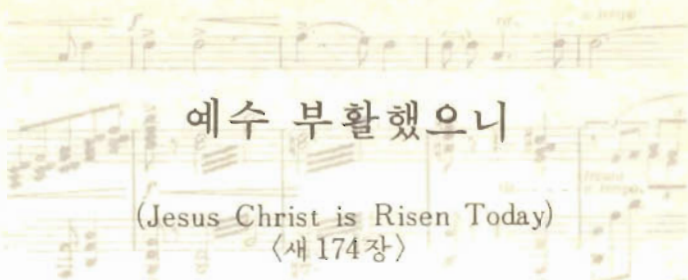
6.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말라(엡 4:23)”

7.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해도 이 일을 계속하겠는가?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려 함이라(요일 2:28)”

* 찬송가감상 *



예수 부활했으니

(Jesus Christ is Risen Today)

<새 17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부르네 할렐루야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이다.
아니 4월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한 잔인한 달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달이다. 만약 예
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었
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
밖에 없었고, 앞으로 다시 있을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오
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창자 우리도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 어찌 “할렐루야” 찬송과 영
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으랴! 온
세상 인류가 즐거워하고 기뻐하
면서 하나님이 부활하셨음을 찬양

해야 할 것이다.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천사들이 찬
양해야 할 일이다.

길과 진리되신 주 할렐루야
항상 따라 갑시다 할렐루야
또한 영생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4절)

이 찬송은 칼스 웨슬레 (1707~
1788)가 작시하고, 로버트 윌리엄
(Robert William)이 1817년에 작
곡한 것으로서 활기차고 영력있
는 찬송 중의 하나다. 무엇보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능력을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느끼
게 된다.

이 찬송을 기쁨으로 부르시거
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길과 진리되신 주

님”을 찬양하고 천국까지 그 주님
을 따라가면서 찬양합시다. 그리
고 사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
고 부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찬
양합시다.

아무쯁록 금년 부활절에는 우
리 총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찬
송을 부를 때에 새로운 은혜와 감
격이 넘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
래서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부
활하신 주님을 항상 따르면서 복
음의 증인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은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 책 소개 ◇

앤드류 머리 지음 양 은순 옮김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기르자

생명의 말씀사 · 272페이지 · 2,000원

오늘날 청소년 범죄 문제는 마
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
럼 내버려 두고 있고 또한 그리
스도인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의 문
제가 무척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
려고 노력하지만 갈수록 견장을

수 없는 추세가 되어져가고 있다.
마치 이와 비례라도 하듯 각 가
정은 그 존재 이유조차도 찾기
가 어렵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먼저 「가
정」으로 돌아와 과연 가정이 어
떠한가를 살펴보면 그 해결책
을 찾아야 하기에 가정문제는 심
각하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이라
는 제도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가
정의 구성원인 부부와 자녀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도 모른
채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
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앤드류 머리가 쓴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기르자」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들에게 가
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
하고, 각자의 가정이 주님께 거
룩히 되기를 바라는 모두의 소원
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
가를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각 장마다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
보게 하는 귀한 묵상의 재료들로
차 있다.

이 형 수 (월간종교문화부장)



김창인 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④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중 오늘은 세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③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인간은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세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갖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며 때로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인간이 세우는 계획은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악마는 갖은 방법으로 분쟁과 실패와 악독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뜻을 알아 지켜야 하고 백성은 나라의 뜻을 알아 지켜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중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을 다스려 가지로 세워놓았으니 충성함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일꾼을 양성하여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에, 세계에까지 쓸모 있고 필요한 사람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북한선교가 성공되어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메산골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우리나라 백성 모두 하

나님을 알고 섬기는 나라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선교를 감당하며 이 모든 일을 힘써 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새성전 건축이 하루 빨리 완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세워 놓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악마의 계획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귀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할까 살펴봅시다.

첫째,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 내 욕심과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아는 지식이 잔뜩 교만해져서 고집을 부리고 욕심이 양보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실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사장들과 서기관

들에게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아셨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고집한다고 사탄을 물리치듯 물리쳤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에 삶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곧 사람의 값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거나 부자가 되면, 높은 기술이나 권세를 가진 자면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께 욕되고 사람들에게 손해되고 후손에게 저주가 되면 그 삶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세 요한은 서른살까지 훈련하고 수양하다가 육개월 일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났으나 공적으로 육개월 밖에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세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째,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큰 일이거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과 그 고난과 축복을 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내게 재미가 있거

나 칭찬이 돌아오면 충성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파렴
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
다.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
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 땅
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
써야 하겠습니다.

네째,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해낼 때에는 그
만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즐겁게 따르기로 각오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
여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충만을 받은 사람입
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중에 성전
제단으로부터 샘물이 흘러 성전 동
쪽 문 밑으로 흐르는 것을 보았습
니다. 천사가 일천척, 이천척... 측
량하는 대로 건너니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가 잠길 때까지 아무것
도 보지 못하였으나 사천척을 측량
하여 건널 때에 몸이 잠기고 천사
가 인도하는 대로 강가를 돌아보니
언덕 좌우편에 예쁜 꽃이 피고 열
매가 충실한 나무가 한없이 많았습
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바다
는 소생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입니다. 은혜가 발목을
잠글 때까지, 무릎을, 허리를 잠글
때까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
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루어드리려고 계획한 다섯가지 하
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충성한 것을
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충만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루어드리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월의 시-

영원한 외로움에서

이 창 화

푸른 초원에서
만나겠지요
안식의 시냇가에서
몸을 담그겠지요
동녘 하늘가
아름다운 문은
빛을 쏟겠지요

흘러간 세월
틸고 온 고난의 슬픔은
고운 수(繡) 실로
나의 이름 짜겠지요

근심을 시종드는 사랑
나의 잠결에
주님의 음성은
조화로 가득 찬
사랑이 되어
숨은 영원을
눈뜨게 하겠지요





칼빈주의 종말관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1. 인간의 종말

인간의 종말이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출생이 있는 것처럼 종말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였다(신 32:29).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심장의 정지 상태나, 두뇌 기능의 마비 상태로 본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말하며 죄값으로 오는 형벌이라고 했다.

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맹수를 만난다. 그는 맹수를 피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도망치다가 큰 구덩이를 발견하고 그곳에 뛰어들다. 마침 그 구덩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나무에 매어달려 생명은 전지계 되는데 그 나무에는 흰 벌레와 검은 벌레가 계속해서 나무를 잘라 먹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인간은 맹수를 만나 도망치는 사람처럼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팔버둥치며 도망하거만 낮을 상징하는 흰 벌레와 밤을 상징하는 검은 벌레의 작용으로 결과적으로는 죽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같이 철학적이고도 인간적인 사관(死觀)은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는 임종시에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수 23:14)고 했고, 다윗은 죽음을 가리켜 “돌아올 수 없는 길”(삼하 12:23)이라고 했다.

죽음이란 영과 육의 분열이다. 이것은 영혼의 사망, 즉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열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육신의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죽음을 가리켜 “잠자는 것”(막 5:39; 요 11:11)이라고 하셨다.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내세를 부인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내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철학자 칸트(I. Kant)가 그의 「순수이성 비판론」에서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는 형이상학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내세를 알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세를 알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바울은 그 비밀의 계시를(롬 16:25~26) “믿음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딤후 1:10)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Augustine)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내세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또 인도할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세계에서 세상에 오셨고 또 다녀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내세를 논할 수 없다.(고전 2:9-11). 이는 마치 이성없는 동물에게 철학을 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2. 인간의 중간 상태

이것은 인간이 죽은 후부터 부활할 때까지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번의 세계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모태에서 출생하여 죽을 때까지이고, 둘째는 죽은 후 부활할 때까지의 영혼의 세계이며, 세째는 부활하여 영원한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세계이다. 이 교리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쟁을 거쳐 왔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중간 상태를 깊이 생각지 아니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속한 시 일세에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영생하게 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중간 상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그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중간 상태를 영혼의 정화 기간으로 보았는데 이 교리가 후에 구교의 연옥설을 만들게 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 칼빈은 강하게 반대했다. 저금도 구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중간 상태를 잠자는 기간으로 생각한다. 유대인들도 역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행복도 불행도 느껴지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성경은 이 중간 상태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의식적인 상태가 아니고 분명히 똑똑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세계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말씀

죽음이란 영과 육의 분열이다. 이것은 영혼의 사망, 즉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열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육신의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죽음을 가리켜 “잠자는 것”(막 5:39; 요 11:11)이라고 하셨다.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눅 16:19-31 참조)에서, 구원받은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눅 23:43 참조) 가운데서 의식적인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낙원을 구분하고 음부와 지옥을 또 구분하지만 칼빈주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본다. 사도 바울도 의식적인 세계임을 말했다(고후 12:1-9; 고후 5:1; 빌 1:23 참조).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는 안식이 따른다(계 14:13). 이것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이 범죄 후 땅을 쫓겨야 먹을 수 있는 고통이 따랐다. 이런 일들로부터 쉬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안식한다는 뜻은 엄매였던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유보다는 부자유가 더 많은 세상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 진정한 자유란 이 세상을 떠난 후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간 상태는 의식적이며, 성결하며 행복한 세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믿는 자가 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물음에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 성화되어 즉시 영광세계에 들어가게 되며 그의 육체는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느니라”고 대답한다.

구교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하여 연옥설을 주장한다. 연옥이란 말은 “정화(淨化)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성경에 정결케 한다는 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 6:7; 시 51:7; 말 3:3; 요 15:2 등).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화란 연옥에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불완전하여 연옥을 거쳐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연옥에 가는 사람

은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이나 혹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한 사람들이 가는데 연옥에서 남아있는 부정을 다 씻고 난 후에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다.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기간은 그 사람의 지은 죄에 따라 각각 다른데 어떤 사람은 몇 시간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 세기 동안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연옥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같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고 연옥의 고통은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옥의 고통에서 구출되는 방법은 지상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을 위하여 연보를 많이 바치거나 미사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이와같은 연옥설을 인정치 않는다.

3. 그리스도의 재림

1) 재림의 시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재림의 임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림의 연대나 날짜까지 예언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고 경고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오늘날에도 재림의 시기를 말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은 다 말

씀을 통하여 알려주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죽는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의 시기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인간이 알아야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전 3:11). 만약 어떤 개인이 자기의 죽는 날을 알게 된다면 공포증에 걸리게 되고 재림의 날짜를 알게 된다면 현세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재림의 징조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재림의 때가 가까왔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이 오늘날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세에도 “진흙과 쇠가 합하지 않음과 같이”(단 2:43) 개인주의로 분열이 많아질 것을 보여 주며, 환난이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다(단 9:25-27 참조).

예수님께서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6-12)고 하였고 사도 요한도 전쟁과 재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계 8:9).

3) 재림의 형편과 목적

① 재림은 육체적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믿으나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는 성경

의 교리를 부정하고 단순히 영적 재림만을 주장한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했던 이단이 있었다. 그들은 그노시스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을 대하여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의 영”(요일 4:1-3 참조)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행 1:11; 마 24:29,30; 계 1:7) 예수님의 초림때는 몇 사람만이 알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소중했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알게 된다. 또한 예수님 초림 때에는 영으로 오신 메시야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육신과 결합하셨으나 재림 때에는 육신으로 재림하신다(마 26:64; 막 13:26; 눅 21:27; 골 3:4; 딤후 2:13; 히

9:28).

②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럽게 오신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말 구유에 비천하게 오셨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영광스럽게 오신다(히 9:28). 재림하실 주님은 구름을 타고(마 24:30),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살후 1:7),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살전 4:16) 성도들을 대동하고(살전 3:1; 살후 1:10) 세계와 원수들을 발로 밟고 오신다(고전 15:25; 계 19:11-16).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 세계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마 13:49,50; 16:27; 24:3; 25:14-46; 눅 9:26; 19:15; 19:26,27; 요 5:25,26; 행

17:31; 롬 2:3-16; 고전 4:5; 15:23; 고후 5:10; 빌 3:20,21)

③ 재림 때에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중생의 사역이 계속된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육신까지 부활시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요 11:25,26)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뜻은 믿는 사람들의 육체도 죽는다는 뜻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라는 뜻은 영혼이 중생하고 믿었으면 그 영혼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



각종전자제품도매

• 취급품명

1.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전축, 비디오, 녹음기, 밥솥, 밥통, 가스렌지, 믹서, 커피포트, 에어포트, 다리미 등 가전제품 일절.
2. 비디오 촬영·녹화(결혼, 회갑연, 관광, 각종 행사 출사)

• 본 점포의 특징

1. 본 점포는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보장되는 일류 메이커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2. 본 점포는 유통과정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신 물건을 대리점이나 타 전자센터에 가격을 알아 보시고 본 점포에 다시 가격을 알아보시면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화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종 합 상 사

261-1188·266-9226

대표 오 정 현 집사
오 정 수 집사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히 10: 24, 25)

3월의 새교우

● 1 지구

미아 7구역 김순옥
광희 2구역 최홍섭
미아 3구역 이인숙
광희 1구역 안정현
보문구역 이정순
미아 4구역 김영선
안암구역 서정인
도봉 2구역 김경자
길음 1구역 이경옥
광희 1구역 최옥순
미아 2구역 박종식

● 2 지구

송정구역 김재완
용담구역 박경희
사근구역 강선희
답십리 1구역 신기복
중곡 3구역 진인수
마장구역 서영환
전농 1구역 정도영
장안 A구역 박태석
답십리 1구역 전대연
목동구역 지영식
이문구역 김광전
성내구역 김명희
면목 1구역 윤두아
구리구역 이한세

● 3 지구

성수 2구역 강태주
신당 5구역 김승규
시영 3구역 홍석빈
쌍림 3구역 김순자
화양 1구역 김철자
성수 3구역 송홍주
성수 3구역 성길용
행당 2구역 박한준

행당 1구역 전용혜

● 4 지구

성남 2구역 김영자
성남 2구역 김정자
목수 2구역 김행복
진삼구역 원은희

● 5 지구

안양 2구역 김정일
불전 4구역 김강욱
필동 9구역 박종녀
안양 1구역 김승훈
필동 2구역 이영옥

● 6 지구

구로구역 박준기
대흥구역 전상봉
화곡 1구역 이병진
성산구역 권권중
합정구역 이순희
인현 3구역 이신통
화곡 1구역 한애자
화곡 3구역 조우송
화원구역 박연호
대흥구역 김광일
대흥구역 김경희
영리 2구역 차옥경
마포구역 김아지
용문구역 정청자
대흥구역 김인규

● 7 지구

북변구역 한동열
종무 1구역 김순녀
명륜 2구역 안갑일
연지구역 이순이
오정 2구역 양홍식

북가좌구역 이화선

명륜 2구역 신정자
장신 1구역 노정선
장신 3구역 김덕형
장신 3구역 김정호
연지구역 서정근
북가좌구역 권오정
장신 3구역 김종화

송인 1구역 한윤례

혜화구역 도재덕
동송구역 김순식
역촌 2구역 임영자
종신구역 정옥현
종신구역 박수미
종무 1구역 이사임
조동 2구역 김종영

결 혼

- 박재호군(전진선집사 아들, 고등부 교사)과 나판임양(중등부 교사) 1 일
- 김재길군(필기복편사 아들) 6 일
- 김정기군(김정순전도사 동생) 9 일
- 황선기군(문촌구역)과 김은숙양(주교 교사) 15 일
- 김주철군(박선조집사 아들)과 김미자양(한남구역) 20 일
- 이명석군(이상복씨 이영주편사 아들)과 오경화양 20 일
- 이성복군과 전귀순양(청년부 회원) 23 일
- 이승원군과 문의정양(문채인, 전정배집사 딸) 25 일
- 김규환군(봉천구역)과 송영록양(진갑법집사 딸, 여세부 교사) 27 일
- 이승기군(이동규장로 김영남 편사 아들)과 이희선양(고 이삼은 전도사 딸) 27 일 - 미국 시카고

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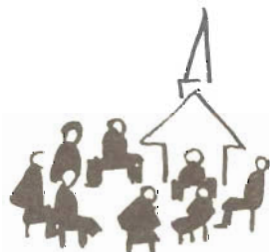
- 강경자편사(은마구역) 4 일
- 김순애씨(황학구역) 8 일
- 최승현씨(정재금집사 부군) 15 일

이 민

- 백영주(진삼구역) 도미
- 서용석(도봉 1 구역) 도미
- 김남형(용두구역) 미국유학

교역자 · 장로 동정

- 김의철장로 - 도미, 4월 2 일
- 김은숙전도사 - 개인 사정으로 사임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1,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년새신자 1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년 새신자 2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새신자부실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 인도네시아 - 서만수선교사

*기도제목

- ① 인도네시아 오지 개척선교의 풍부한 결실과 주님께 헌지인 사역자를 많이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부탁을 해 오심
- ② 한인교회의 안정 발전과 선교에 적극적인 참여 위해.
- ③ 할렐루야 선교회관의 신축과 남방 오지 선교 기지의 영구화의 성공적 발전 위해.

● 홍콩 - 홍종만선교사

*기도제목

- ① 와병중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온 교우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② 한인 교회의 안정 발전과 한화 선교 협력회의 성공적 전진 및 이만렐 선교사님 위해.
- ③ 마카오 개척교회 및 의료 선교의 부흥과 발전, 열영택 목사님을 위해.

● 애 굽 - 이준교선교사

*기도제목

- ① 현지인 목사 및 전도인과 오·엠·에프 선교사와 함께 학원선교 등 선교 좌담회를 가지심.
- ②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한국거류민회 임원회, 한국부인회월례

회 방문하여 대담 및 강의하심.

- ③ 쇼부라 엘 샤르키아 애굽 복음주의 교회 주일예배 설교 및 한국교회 소개.
- ④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학생의료장학금 전달 및 마디 미국인 교회 방문하여 애굽 선교현황 대담.
- ⑤ 할렐루야, 카이로 총영사관 김억 참사관 장녀 김지희양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 3월 20일 35일만에 퇴원.

*기도제목

- ① 애굽은 지금 여름철에 들어간다. 무덥고 어려운 계절에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 ② 애굽 선교의 발전과 한인 교회 및 현장 예배를 위해.

● 칠 레 - 유재일선교사

지난 2월 25일 칠레 한인 연합교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음. 현지에는 칠레 국민학교 5학년에 들어가서 배우고 계신다.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칠레인 개척교회와 양로원 등 후생복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칠레 선교의 문을 넓히는 일이며, 두째로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대담방과 목회활동을 강화해 나가시면서 교회 건축 설계 구상에 따라 설계도가 작성되면 곧 건축공사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다.

*기도제목

- ① 칠레 교회의 선교문 확장과 많은 열매위해.
- ② 한인 연합교회 건축수속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③ 한인 교회 대담방에 은혜 풍성하도록.
- ④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안녕위해.

● 호 주 - 김태현선교사

고려해운 및 일우해운 등 소수 선박의 선장과 선원들 방문 및 초청 전도하고 예배드림. 이민오신 가정 방문 및 감사의 시간 갖고, 호주의 장의법을 견학하고 호주인과 애찬의 교제와 대담을 통해 학국교회와 선교활동을 소개하면서 유익한 시간 가지심.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안녕위해.

● 서 독 - 육호기선교사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위해.
- ② 한인교회 안정과 발전 및 필요한 선교관의 매입, 한독 찬송가 출

관위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 아르헨티나—백성통선교사

- ① 교포 선교의 발전과 한인 교회의 안정위해.
- ②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안녕위해.
- ③ 현지인 선교의 개척과 발전을 위하여.

● 파라과이—김재창선교사

사모님의 건강을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 ① 불안한 정정속에서의 선교사님 가족의 안전과 건강위해.
- ② 이민 선교의 성공적 발전위해.

● 일본—유병세평신도선교사

*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의 의료봉사 활동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중환자들을 위한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열매위해.
- ② 사모님의 부인 성경반 인도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풍성하고 많은 열매 나타나도록.
- ③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도록.

● 서독—박용삼평신도선교사

* 기도제목

- ①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 통과를 위하여.
- ② 장래 선교사역을 위한 선교학 및 언어학 준비에 더욱 행통하시도록.

인도에서 온 편지



거룩하고 귀하신 주님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총현 해외복음선교회의 변동사항과 보내주신 최근의 소식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전후로 분주하여 바로 답신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금년도 인도 선교예산에 대해 알려주심도 감사합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도 동부의 다질링이란 곳에서 지난 2월 20 일 결혼했습니다. 다질링은 인도의 중심부에서 2,500 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제 아내는 「스네하-라타」이며 네팔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입니다. 선교에 열심을 가지신 분으로 제 목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월에는 「우담푸르」의 KEF 교역자 협의회에 나갈 계획이며 그뒤에는 「라다크」로 가서 올해 복음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산길이 아직 막혀 있어서 비행기로 중심지까지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상쿠」부락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녹음기술자 한 분이 미국에서 오는 데 신약성경말씀과 몇몇 성도들의 메시지를 카세트 테이프에 수록하는 훈련을 우리 남녀 사역자들에게 가르쳐 이곳의 현지목회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무」와 「카쉬미르」에서의 교역자 회의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저는 협조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를 초월한 협의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쉬미르」은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인도의 따뜻한 지역 출신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추운 날씨일 것입니다. 험악한 계절에 이 분들의 건강과 힘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공한을 마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역자 엘리야 질간으로부터

● 본부소식

- 1. 김성완 선교사
브룩셀 한인교회의 정석 초청을 받고 비자 수속중, 3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전제철야기도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심, 곧 파송 예배 드리고 네 분 가족 출국하실 예정, 가족의 건강과 출국 수속의 원활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 김영희 목사
지난 1월 18일부터 개학하여 수업에 몰두중, 캘리포니아주 자동

차 국제 면허증을 받으시고 산더야고 한인교회에서 설교하시며 철야기도회를 라·구나 기도원에서 인도하시는 등 바쁘시다.
주소 / 233 N. Mollison Ave. #54,
El Cajon, CA 92021, U. S. A.

- 3. 윤형철 목사
3월에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수강하셨는데 와그너 박사, 앤더슨 박사, 맥가트란 박사 등의 열강에 심취하셨다고, 플러 신학원의 “세계 선교학교”를 적극 소개하신다.

춘계노회 열어 회관건립에 총력

새임원 선출, 총회 총대선정도

총회산하 48개 노회가 일제히 열리고 있다. 경북지역 노회는 3월중 이미 폐회가 되었다.

이번 노회에서는 임기만료된 임원진을 개편하고 총회 총대를 선임했다.

특별히 각 노회는 교회설립 1백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짓고 있는 「총회회관」 건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하고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기도하며, 재정적인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기독교 대책협의회 총회

신학교 인가 계속추진

한국기독교 대책협의회는 한국교회 목회자 수급을 위하여 신학교 인가를 계속 추진키로 하는 한편, 사학법 개정을 위해 전교인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3월 11일에 가진 두번째 정기총회에서는 당면한 신학교 인가문제에 대하여,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문교부에 신학교 인가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한국교회의 올바른 교회상 확립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공동회장 : 박치순, 조명록, 이봉성 목사 서기 : 신신목 목사, 회계 : 김석태 사관.

장로교 정통성 함양에 공동노력

한국 장로교 협의회 총회 결의

한국장로교 협의회는 3월 19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 1회 정기총회를 열고 장로교의 기본노선과 정통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을 논의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본 교단을 비롯하여 예장 통합, 고신, 대신, 기장 교단의 17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 총회에서는 개혁주의 입장에 맞는 신학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논의했다.

또 총회에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 회장 : 박형규, 부회장 : 최성원, 박치순, 최일영 김세창, 서기 : 김형태, 회계 : 오 건 감사 : 홍태우

▲ 운영위원 : 박성만, 이의호, 민영환, 이형룡, 박재봉

교회와 경찰협(協) 창립10주년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는 지난 3월 18일 오후 6시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동회 창립 10주년 기념및 안응모 치안본부장 취임환영 기도회를 가졌다.

각 경찰서 경목대표와 교계인사 경찰간부들이 참석한 동 기도회는 1부 예배를 마치고 10년간의 공과를 회고했다.

안총감은 인사에서 「북쪽의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교회와 경찰이 함께 상부 상조하여 국가의 치안과 정의, 사회구현을 위해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대한 성서공회에서

특수지역에 성경 무료반포

대한성서공회는 성경반포의 효율화를 위해 특별반포부를 설치해 할인및 무료로 성경을 반포키로 했다.

동회는 특수선교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반포가 아닌, 성경을 직접 안겨주어야 할 형편에 있는 병원, 고아원, 형무소, 군부대, 도서지방 주민들에게 성경을 할인및 기증한다는 것이다.

또 매년 약 1억원 상당의 전도지 단편 신약성경을 반포할 예정이다.

총회교육부 교육전문위원회

여름교본 교과확정

총회교육부는 여름성경학교 교본발행을 위한 교과를 확정했다.

지난 3월 22일 가진 총회교육부 임원 및 교육전문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동 교본의 교과과정에 의하면 3계년 커리큘럼으로 짜여졌다.

82년도 총 주제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으로서 각부별 내용에 의하면 유치부는 성부하나님, 유년부는 성자예수님, 초등부는 성령님, 중등부는 하나님의 속성, 고등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대학·청년부는 「창조와 섭리」이다.

해군 군종감에 전동식목사

제16대 해군 군종감으로 본교단 출신 전동식 목사가 지난 9일 취임했다.

우리교단으로서는 처음있는 일로서 앞으로 군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신임 군종감은 피력했다.



5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

태신자 전도를 중점으로

교사와 구역전도대를 활용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교회는 매년 1년중 한달은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온 교인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금년에도 5월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하고 전도위원회가 주관하여 준비, 계획하고 있다. 이 총동원 전도의 달을 통하여 교회내의 각 부서와 전 구역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도위원회는 이 총동원전도의 달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구역을 중심으로 전도훈련을 실시해 왔다. 또한 4월중에는 제적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해에 취약점이었던 횡적 협조관계를 강화하여 주일학교 전도대와 구역전도대의 2개 전도대를 편성하여 이 전도대를 중심으로 모든 전도활동을 펴 나가게 되고 협의기구로 예배위원장, 심방위원장, 교육위원장, 성경연구원감등을 구성하여 중·횡으로 일원화된 전도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준비과정과 훈련과정에서 전 교인의 전도열을 고취하고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4월 저녁에 배시 2회를 전도를 주제로 한 설교를 하고 16부 주일학교의 예배나 집회에도 2회의 전도를 주제로 한 설교를 할 계획이다. 또한 새벽기도회 설교를 전도 주제로, 철야기도회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온 교우는 한 마음으로 이에 동참하여 교회발전과 자신의 영적 성장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5월 총동원 전도의 달에 대한 개요와 훈련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성구 및 찬송

-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 새 544장(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2. 전도기간 (3-5월)

- 3월 / 구역확장원 중심의 전도의 달
- 4월 / 집중기도 및 제적교사 훈련의 달
- 5월 / 태신자 데려오기 운동기간

3. 전도 방법

- 1) 태신자전도/믿음과 기도로 임 대한 전도대상자
- 2) 축호전도/구역확장원 중심의 심방전도
- 3) 노방전도 /주교각부에서 계획 실시
- 4) 학원전도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서 계획 실시
- 5) 문서전도 /태신자와 결신자를 대상으로 한 총동원 전도의 후속처리 방법

4. 사후처리방안

- 1) 5월중 새신자 접수 환영
- 2) 6월 첫주 저녁예배후 새신자 환영회
- 3) 구역전도요원이 새신자 카드를 보관 돌보게 한다.
- 4) 태신자 및 결신자에게 10단계 문서전도 실시
- 5) 구역전도요원은 매월 둘째 주, 5부 예배시간(오후 3시30분)에 유년부실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5. 훈련계획 과목 및 일정

- 1) 4월 26일(월·오후 7~9시)
 - 개강예배(1시간)
 - 전도전략(1시간)
- 2) 4월 27일(화·오전10~12시; 오후 7~9시)
 - 전도자료 사용법(오전·후 각 1시간)
 - 성공적인 전도법(오전·후 각 1시간)
- 3) 4월 28일(수·오전10~12시)
 - 불교인 전도법(1시간)
 - 구역전도요원 모임(1시간)
- 4) 4월 29일(목·오전10~12시; 오후 7~9시)
 - 전도자는 사용법(오전·후 각 1시간)
 - 반대의견 다루는 법(오전·후 각 1시간)
- 5) 4월30일(금·오전10~12시; 오후 7~9시)
 - 전도자료 사용법(오전·후 각 1시간)
 - 이교와 이단비판(오전·후 각 1시간)



교회소식

충현기도원에서

자체 부흥회 열어

충현기도원은 봄을 맞으며 기도원 자체에서 부흥회를 개최기로 했다. 오는 4월 19-23 일까지 열릴 부흥회에 강사는 기도원 지도 한영철 목사가 담당한다.

1982년도 2 차

성례식 모두 마쳐

교회는 1982년도 제 2 차 성례식을 모두 마쳤다. 4월 1, 2일의 문답과 2일 저녁의 세례식에 이어 4월 4일 주일 1, 2, 3, 4, 5부 예배식을 통해 성찬식을 갖고 금번 성례식을 마쳤다.

금번 성례식에 문답자는 총 288명이었다(지난 1차는 308명)

구 분	남	여	계
학 습	48	67	115
세 례	31	75	106
유 세	23	28	51
입 교	6	4	10
개 종		3	3
계	108	177	285

장새부에서 학습·세례

한편 장년새신자 1부에서는 지난 2월 28일 장년새신자 1부(학습과정) 수료생 전명(남 4, 여 18)에게 남성호목사 주례, 김은호, 김한홍 장로 배석하여 학습문답을, 장년 새신자 2부에서는 지난 2월 21일 장년새신자 2부(세례과정) 수료생 11명(남 3, 여 8)에게 이성근목사 주례, 김한홍장로 배석하여 세례를 베풀었다.

장로 20명 투표

교회는 이모양 저모양으로 많은 결원이 생긴 시무장로를 보충하기 위해 오는 4월 25일 장로투표를 실시하여 20여명의 시무장로를 뽑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해와 교역자회에서 장로후보 42명을 선출하여 교회뜰에 게시하고 이들 중에서 20명을 투표기로 했다. 이는 교회가 크다보니 장로후보가능자를 찾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42명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서)

- 강모용 · 49(노년부부장·제직회부서기 / 보림상회경영)
- 강은원 · 46(초등부부장 / 사업)
- 김광삼 · 63(/ 변호사)
- 김광선 · 41(고등부부장/대동포장사무이사)
- 김가열 · 58(/ 문교부 장학편수실사 회과)
- 김동삼 · 64
- 김영근 · 36(/ 세광상공전무이사)
- 김영진 · 61(/ 목공업)
- 김재균 · 42(장년부교사/동서섬유대표이사)
- 김정선 · 65(제직회 회계 /)
- 김종구 · 42(유년부부장 /)
- 김창옥 · 58(노년부교사/태광기업사 부사장)
- 김천채 · 38(제 2 성가대 대원 / 한국 전력 배전과장)
- 남상철 · 65(/ 한국기계공업 연합전 무이사·남영섬유대표)
- 남선우 · 40(선교부부장/남영섬유대표이사)
- 문홍구 · 46(/ 중구청 근무)

전도위 특수분과

군종사병 훈련

전도위원회 특수분과에서는 1, 4월 중 2 곳에서 군종사병훈련을 실시한다. 4월 6~10 일까지는 조준상·박동실목사가, 4월 12~15 일까지는 박동실·남성호목사가 각각 담당한다.

- 박관영 · 60(초등부교사/제일은행 · 미 8 군 근무)
- 박승준 · 48(중등부부장·권찰회부서기/파리제과경영)
- 박인세 · 58(장년새신자 2 부부장/제 품업)
- 박재용 · 48(/ 충북대학 사대교수)
- 박철훈 · 45(제직회 월정회계 / 등장문구사경영)
- 서동석 · 39(고등부부장/장로회신학 교 총무처장)
- 서일영 · 56(장년새신자 1 부 교사 · 제직회 십일조회계/신일 스포츠사 경영)
- 송기홍 · 47(장년새신자 1 부장·제직회부서기/수도사장경영)
- 송환창 · 54(제직회 십일조회계 / 국제동서의학연구소 사무국장)
- 심정우 · 59(권찰회서기 / 공양수산(주) 감사)
- 안익태 · 52(교육위서기/교회 직원)
- 안종옥 · 48(/ 동양유리)
- 엄필성 · 48(새가정부부장/남북치과 경영)
- 오정현 · 44(산업전도 교육부부장 · 재정위원회서기/종합 사 경영)
- 윤인현 · 51(대학부부장/모리아주식 대표이사)
- 이영세 · 54(/ 안과박사)
- 이종석 · 44(/ 중앙의료원 내과과장)
- 이종섭 · 48(/ 조폐공사 근무)
- 이 훈 · 42(제 3 성가대대장/연대교 목실 근무)
- 정광호 · 48(장년부부장/상업)
- 정운석 · 49(어린이새신자부부장/상업)
- 최대원 · 50(장년부부장/송월타올대 리점경영)
- 최명환 · 49(/승일물산대표이사 · 대한제지부이사장)
- 최상규 · 50(유치부부장 · 제직회 서기/태광실업대표)
- 최성현 · 43(유년부장/상업)
- 하대선 · 55(청년부장/(주) 농심 상 무이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목표 세미나

교육위원회는 1983 년도의 각 부서 교육목표 설정을 위하여 주교 각 부 부장과 지도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4월 18일, 5월 2일, 5월 16일의 주일 각 오후 3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열리게 되는데 강사와 강의제목은 다음과 같다.

- 1982년 4월 18일(오후 3시 30분) 교사의 자질향상(이양우 강도사)
- 1982년 5월 2일(오후 3시 30분) 생활하는 신앙인 육성(허충욱 목사)
- 1982년 5월 16일(오후 3시 30분) 교육이념의 체계화(유국남강도사)

□ 인사이동 □

1. 예배위원회

① 임명

제일성가대 여성기 테너
제일성가대 고경호 테너
제일성가대 조정에 소프라노

2. 교육위원회

① 임명

유년부 김순실(여) 정교사
유년부 이인수(남) 임시교사
초등부 장희섭(남) 임시교사
초등부 신미경(여) 정교사
초등부 안희영(여) 임시교사
초등부 김명균(남) 임시교사
초등부 김성자(여) 임시교사
초등부 허동성(여) 임시교사
고등부 임점택(남) 임시교사
장년부 백도풍(여) 정교사

② 퇴임

유치부 임인숙(여)
중등부 허세동(남)
대학부 윤완철(남)
대학부 김승중(남)
초등부 신동애(여)

3. 총무국

① 임명

경비 김의진(남)

② 퇴임

성경연구원 김준영(여)

각 종 통계

1982. 3. 7 (매주 첫 주 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에 배후
- 매주 수요일 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서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철

구	분	남			계				
		I부	182	317	499				
예배	주 일 낮	II부	461	1,088	1,549	총 세 대 수			
		III부	410	879	1,289				
		IV부	249	577	826				
		V부	270	568	838				
		계	1,572	3,429	5,001				
신	주 일 저녁	사 일 저녁	211	405	616	교인 총수	남	4,054	4,295
		어린이새신자부	21	16	37			5,893	
		영 아 부	177	144	321			9,947	
		유 치 부	130	125	255			2,230	
		유 년 부	198	223	421			3,706	
급	초 등 부	중 등 부	228	207	435	입교	남	5,936	613
		고 등 부	198	195	393			2,230	
		대 학 부	128	159	287			3,706	
		청 년 부	105	126	231			5,936	
		장 세 1 부	61	103	164			613	
학	교	장 세 II부	53	95	148	유아 세례	남	500	1,113
		장 년 부	34	71	105			500	
		노 년 부	29	299	328			1,113	
		산 업 교 육 부	47	134	181			308	
		선 교 부	19	83	102			415	
현	황	새 가 정 부	24	80	104	학습 세례	남	723	903
		합	16	35	51			1,272	
		합	3,496	6,473	9,969			2,175	
		합	3,496	6,473	9,969			2,175	
		합	3,496	6,473	9,969			2,175	

4 월의 행사



* 교 회 *

1-4 일 / 82년도 제2차 성례식

- 1, 2 일 - 학습세례 문답식
- 3 일 - 세례식
- 4 일 - 성찬식

5-10 일 / 고난주간

- 9 일 / 전체철야기도회
- 11 일 / 부활절
- 27 일 / 정기당회

* 예배위원회 *

4 일 / 제3 성가대 고난주간 성가발표회

6 일 / 제1 성가대 「부활주일 대음악제 (기독교 방송주최)」 참가

11 일 / 제2 성가대 부활절 축하 성가 발표회

* 전도위원회 *

1 일 / 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

5-10 일 / 산업전도회 고난주간특별 새벽기도회

11 일 / 남전도회 월례회

18 일 / 여전도회 월례회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5 일 / 전도위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

22 일 / 교육위원회 월례회

* 심방위원회 *

- 4 일 / 제직회
- 11 일 / 권사회 월례회
- 18 일 / 심방위원회 월례회
- 25 일 / 구역권찰회

* 건축위원회 *

26 일 / 건축위원회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

18 일 / 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

4·18 일 / 재정위원회 월례회

* 출판국 *

- 11 일 / 월간충현 4월호발간
- 18 일 / 출판국 월례회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 / 조 현 명

편집위원 /

김 하 진	조 선 근
김 차 생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종 주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4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4호

통권 제98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2년 4월 5일 인쇄

1982년 4월 11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이 형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 교회

1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6

전화 / 260-3407 · 3408

편집하고 나서

*...부활주일에 맞추어 내느라고 법석을 떨었다. 부활주일을 맞으며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은가 하여 「우리의 자랑-십자가」를 게재해 본다.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오늘의 자신과 비추어 본다면 좋은 부활절을 보내는 추억이 되리라 믿는다. 또한 오치용 목사님, 김연이 전도사님들의 좋은 글이 이번호를 더욱 빛나게 해 주었다.

*...손봉호박사님의 「사회관」은 이 사회속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전 타의에 의해서도 사회 악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4월 25일, 20명의 시무장으로 투표를 위해 장로 후보자 42명을 당회가 선정, 교회 뜰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교회는 1982년도 제2차 성례식을 가졌다. 지난 4월 1, 2일에 있었던 문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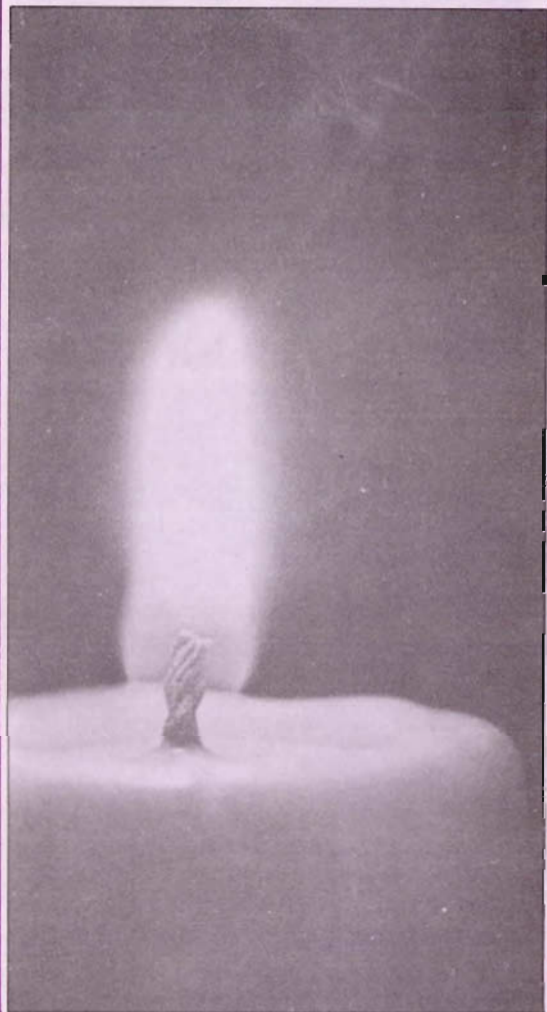
〈금년부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유아세례는 오후 2시에 별도로 시행, 유아세례식을 가졌다〉



〈4월 4일(일) 1,2,3,4,5부 예배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졌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4월 4일(일) 저녁 제3성가대가 고난주간 특별성가발표회를 가졌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부활의 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떠나
오늘토록 한없이 헤매었사오니...
그리스도 죽으실 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때때로 아련히 의문던져
의혹하고 부인까지 했사오니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 잊어버리고
자만하며 무지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뜻 아니라, 우리의 뜻 이루어지이다...
오, 올해도 동트는 부활의 새벽에
우리 위에 당신의 빛 비추시어
살아나신 구주 우리 가까이 계심을
저마다 느끼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요, 당신의 크신 지혜 안에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시어
이 세상 캄캄한 "어둠"일랑
"당신의 빛"으로 모두 소멸케 하소서

(헬렌 스타이나 라이스)